# 치솟는 건자재값 … 건설공사 멈추나

## 관련 업계 납품단가 인상요구 잇따라

## 레미콘·아스콘 업체 공급중단 움직임

올 들어 철근 등 주요 건자재값이 줄줄이 오르고 관련업계의 납품단가 인상요구가 이어지면서 광주·전남 건설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레미콘과 아스콘 등의 업계가 원자재값 인상분을 납품 단가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납품을 중단할 예정이어서 '공사 중단'에 대한 우려마저 커지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광주·전남의 레미콘 업계가 납품 단가 12~13% 인상을 놓고 각 건설업체와 개별 협상을 벌이고 있다.

지역 레미콘 업계는 올해 시멘트와 모레 등 원자재값이 크게 오른 만큼 ㎥당 납품가격을 5만1천110원으로 올려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현재 단가(4만5천360원)보다 12.7%(5천750원) 높은 것으로, 서울 등 수도권의 인상폭에 비해선 8천원 가량 낮은 수준이다.

특히 지역 레미콘 업계는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9일로 예고된 전국 레미콘 업계의 총 파업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자칫 지역 내 공사 중지가 예상되고 있다.

A레미콘사 관계자는 "올 들어 시멘트가 t당 5만8천원에서 6천원 가량 오른 데다 모레도 ㎥당 1만2천원에서 5천원이나 올랐다"며 "원자재값 인상분이 가격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팔수록 손해가 커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지역 건설업체는 레미콘 납품 중단 등의 초강경 대응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전남의 경우 이미 한 달전부터 레미콘 단가 12~13% 인상안에 대해 개별협상을 벌여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건설업체는 전국적인 납품 중단 등 레미콘 업계의 단체 행동 움직임에는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또 향후 철근과 레미콘 등 주요 건자재값의 추가 상승 등에 대한 대책 마련에도 고심하고 있다.

B건설사 관계자는 "광주·전남은 상당수 업체가 공기를 맞추기 위해 레미콘 가격 인상안에 합의한 것으로 안다"면서 "하지만 주요 건자재값이 하루가 다르게 뛰고 있어 납품단가의 추가 인상요구가 이어지면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유가 여파로 아스콘업계도 납품 중단을 예고하는 등 원자재값 급등으로 인한 파장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납품가격을 인상하지 않을 경우 납품중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광주·전남 아스콘생산업체들도 18일 대전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석해 단가 현실화를 촉구할 예정이다.

광주·전남아스콘공업협동조합 관계자는 "아스팔트의 주원료인 두바이산 원유값이 1년새 67%나 인상돼 도저히 단가를 맞출 수 없게 됐다"며 "광주·전남도 아스콘 공급가격을 현행 t당 4만3천540원에서 최소 1만원 이상은 올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임금님 수라상' 종합외식업체 (주)놀부NBG가 한정식 전문점 '수라온' 오픈을 기념해 17일 서울 서초구 '수라온'에서 조선시대 임금님 수라상을 재현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 쌀 직불금 528억 지급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이덕수)는 17일부터 2007년산 쌀소득보전 변동직불금 528억여원을 전남지역 각 시·군지부를 통해 지급했다.

이번에 지급되는 쌀소득보전 직불금은 지난해 10월 지급된 고정직불금 1천355억원에 이은 변동직불금으로, 해당 농업인 계좌에 자동 입금된다.

농업인 통장에는 80kg 1가마당 4천907원에 해당하는 변동직불금이 입금되고, 직불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변동직불'이라고 새겨진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 농·축산 경영자금 5천억 지원

### 농협전남본부 연리 3%

전남도내 농업인들의 농·축산 경영을 위한 자금이 저리로 지원된다.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이덕수)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4천912억원의 영농자금을 연리 3%, 대출기간 1년 조건으로 개별농가당 대출잔액 기준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고 밝혔다.

자금 종류별로 살펴보면 미곡 등 식량작물을 중심으로 한 일반농업 경영자금 3천327억원, 과수·채소·원예·특용작물을 중심으로 한 전문농업경영자금 1천182억원, 부업규모 축산 중심의 축산경영자금 238억원, 품목농협에서 취급하는 원예작물자금 165억원 등으로 나뉜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 "車산업 생산·협력적 노사관계 필수"

### 현대·기아차 그룹 산하 연구소 밝혀

### '샌드위치' 위기상황 적극 대처를

한국 자동차산업이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가 경제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생산적·협력적 노사관계로의 대전환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대·기아차그룹 산하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는 17일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 사옥에서 열린 '자동차산업 경쟁력과 노사관계'에 관한 발표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자동차산업연구소는 "최근 세계 자동차산업은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높은 성장세가 계속되면서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불릴 정도의 구조적인 변동을 겪고 있으며, 그 속에서 한국 자동차산업은 선진업체들의 본격적인 견제와 신흥업체의 추격으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주목했다.

수요 측면에서 성장축의 다원화, 소비자 니즈의 다양화·고도화, 친환경·안전규제 강화 등으로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고, 공급 측면에서 업계판도 재편, 신흥업체들의 급성장, 신기술 개발경쟁 격화, 원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수익성 압박이 강해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자동차산업연구소는 "이같은 변화의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현장으로 중심으로 한 노사협력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전제한 뒤 "생산적·협력적 노사관계는 자동차업계의 글로벌 스탠더드로 자리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 도요타의 경우 생산·협력적 노사관계를 기반으로 '도요타 생산방식'(TPS)을 구축해 경쟁력을 높였고, 독일 폴크스바겐은 노사간 대타협을 통해 1990년대 초반 경영위기를 극복했으며, 2000년 들어 위기에 직면한 미국 GM은 2007년 단체협약 개정 등을 통해 노사관계 대전환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동차산업연구소는 "한국 자동차산업은 양적으로는 2015년 세계 4강을, 질적으로는 글로벌 선도국의 지위 확보를 비전으로 하고 있다"고 전제, "이 비전 달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과제가 있지만 무엇보다 생산·협력적 노사관계로의 전환이 필수"라고 밝혔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 광주세관, 여행자 통관 절차 간소화

### 14개 여행업체와 양해각서

광주세관(세관장 김두기)은 지난 14일 하나투어(주) 광주지사(지사장 이명옥) 등 14개 관내 여행사와 효율적인 여행자통관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상생적 동반관계를 구축했다. 〈사진〉

이날 협약식에서 양쪽 기관들은 단체여행자의 통관절차 간소화, 마약·테러물품 등 사회안전 저해물품의 국내 밀반입 차단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또 협약의 효율적인 수행과 지역 국제공항의 발전을 위해 실무자급 회의를 개설하기로 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 금호타이어 獨·러서 호평 받아

### 자동차매거진 등 소개

금호타이어가 최근 독일과 러시아의 자동차 전문지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금호타이어는 독일 최고의 공신력 있는 자동차 매거진 아다아체(A-DAC) 3월호에서 자사 SOLUS KH 17 제품이 종합 테스트에서 최고 등급(Very recommendable)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아다아체는 브릿지스톤·컨티넨털·피렐리·던롭 등 세계 유수의 타이어 18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주행력, 제동력, 조종안정성, 코너링, 소음 등의 항목을 종합평가해 금호타이어 제품에 최고 등급을 부여했다.

금호타이어는 또 러시아와 독립국가연합(CIS)의 유명 자동차 잡지 자룰렘(Za Rulem) 3월호에 발표된 종합 성능 테스트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자룰렘은 금호타이어 ECSTA SPT가 제동력, 조종안정성, 접지력 등 각 항목에서 최상의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 産銀, 혁신형 中企 3조3천억 지원

산업은행은 올해 혁신형 중소기업에 3조3천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산업은행은 창업 초기 단계의 중소기업에는 6천500억원을, 성장단계의 중소기업에는 해외클러스터 조성 지원과 경영혁신기업 우대대출 등을 통해 2조6천5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산업은행은 이날 중소기업 금융지원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해 중소기업 및 지식서비스산업 관련 협회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산은캐피탈과 대우증권 등 산업은행의 금융자회사 관계자들도 참석했으며 중소·벤처기업쪽에서는 벤처기업협회와 이노비즈협회, IT벤처기업연합회, 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회장단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간담회를 통해 산업현장에서 투자상담을 하는 '투자마트' 개최를 정례화하고 산업은행의 금융전문가들이 협회 회원사 실무직원들을 대상으로 투자심사와 인수·합병(M&A) 등 금융기법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